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22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 미국-이란 협상 기대↑, 다우 최고치 경신

- 미국증시 주요 지수 이틀째 강세: 다우+0.55%, 러셀2000 0.93%
- 미국-이란 협상 이슈에 장 중 유가 급등락..WTI 1.9%↓
- 연준 내 매파적 기류 재부상..제이미 다이먼 "금리 더 오를 수 있어"

## Summary

### 미국증시 상승..다우 최고치 경신

5월 21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대한 의구심이 장 중 번지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협상 진전과 타결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주요 지수 일제히 강세 마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55% 상승한 50.285.66에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 S&P500 지수는 0.17% 상승한 7,445.72에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09% 상승한 26,293.10에 거래를 마침.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93% 상승해 주요 지수 중 가장 크게 오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일에 이어 3%대 낙폭을 기록. 3.90% 하락한 16.76에 마감.

(다우 +0.55%, 나스닥 +0.09%, S&P500 +0.17%, 러셀2000 +0.93%)

### 유가 따라 움직인 시장

전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이날 초반 급등하며 시장 경계감을 높임.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불허할 것을 지시했다는 로이터의 보도가 전해졌고, 미국이 종전 협상 타결과 관련해 양보할 수 없는 '레드 라인'으로 반복 언급하고 있는 우라늄 반출, 폐기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면 협상은 결국 다시 난항을 겪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된 것. 다만 이후 카타르 매체 알 자지라 기자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해당 보도에 대한 반박성 언급을 했고, 오후 들어 파키스탄의 중재 하에 종전 합의 최종안이 마련됐다는 이란 ILNA 통신의 보도도 전해져 다시금 합의에 대한 기대가 커짐. 이에 유가가 하락 반전하고 금리도 오름폭을 축소, 미국증시 주요 지수도 상승권에 거래를 마침. 결국 시장은 다시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유가를 매개 삼아 움직이는 모습.

### 제이미 다이먼 "금리 더 오를 수도"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건 유가 상승이 인플레 재상승으로 이어져 최근 수년래 최고 수준으로 오른 금리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는 경계감이 커졌기 때문. 관련해 제이미 한편 제

이미 다이먼 JP모간 체이스 CEO는 이날 "우리는 저축 과잉 시대에서 저축 부족 시대로 이동했을 수 있다"고 발언. 즉 과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돈이 넘쳐나 국채를 사려는 자금이 많았고 때문에 금리가 낮게 유지됐지만, 최근에는 정부 부채와 전쟁 비용, 인공지능(AI) 투자 붐 등으로 자금 수요가 급증해 시장 내 자금 여유가 줄어들고 이에 국채 수요가 줄어들어 금리는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 그는 "금리가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채권 금리는 오를 수 있다"고 주장.

### 트럼프 "AI 과도한 규제 안돼"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 서명을 수 시간 앞두고 전격 보류함. 당초 주요 기술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행정명령 서명식이 연기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AI 경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우의를 저해하는 어떤 조치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이 행정명령 초안에는 기업들이 차세대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연방 저부에 이를 사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 사전 공개를 기반으로 국가안보/사이버 담당 부처가 민간과 협력해 취약점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전함. 이는 특히 지방 병원이나 중소 금융기관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역량이 취약한 기관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JD밴스 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강조해왔던 부분이기도 함. 다만 벤처 투자자이자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삭스는 AI 규제에 강력히 반대해왔으며 최근엔 FDA식 승인 절차를 AI에 적용할 경우 혁신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기도. 최근 앤트로픽의 최신 AI모델 '미토스'와 같은 고성능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등이 제기되며 규제 필요성과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와 기업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관련한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음이 이번 행정명령 서명 연기 결정으로 확인됐다는 평가.

### 주간 고용지표 견조

미국에서 지난 한 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 수는 예상보다 크게 감소. 미국 노동부는 16일로 끝난 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 수가 직전 주에 비해 3천건 감소한 20만 9천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시장 예상은 21만건.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는 20만 2,500건으로 집계돼 이 역시 직전 주 대비 1,500건 감소.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 수는 직전 주 대비 6천건 증가한 178만 2천건으로 집계. 다만 직전 주의 연속 청구 건수는 178만 2천건에서 177만 6천건으로 하향 조정됨. 견조한 고용 시장 흐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그로 인한 경기 악화가 최종적으로 노동 시장의 경직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향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

## 특징종목

### 양자의 날

미 상무부가 IBM(+12.43%)과 글로벌 파운드리스(+14.92%), 디 웨이브 퀀텀(+33.37%)과 리게티 컴퓨팅(+30.57%), 그리고 인플렉션(+31.48%) 등의 양자 컴퓨팅 분야 9개 기업에 대해 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힘. 구체적으로 IBM이 가장 큰 10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고,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3억 7,500만 달러, 이외 디 웨이브 퀀텀과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인플렉션이 각각 1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받게 된다. 스타트업 Diraq는 3,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관련 소식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으며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일부 기업 지분 확보에까지 나설 예정. 미국 국립 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각 회사에 소수 지분을 투자하는 의향서 체결 사실을 알림. 이 소식은 정부 주도의 양자 컴퓨팅 생태계 조성 가속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이번 발표에 포함된 기업은 물론 포함되지 않은 다른 양자 컴퓨팅 기업들도 동반 상승. 아이온큐(+12.24%), 퀀텀 컴퓨팅(+19.35%), 아킷 퀀텀(+25.67%) 등.

한편 이날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글로벌 기술 리서치 총괄은, 양자 컴퓨팅을 현재 진행 중인 AI 혁명의 파생 수혜주라고 표현하며 양자 컴퓨팅이야말로 AI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기술이라고 평가함. 그는 특히 IBM이 기술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에 비해 투자자들로부터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강조.

### 월마트 “고유가로 소비자 지출 둔화 우려”

전일 타겟(+3.12%), TJX(-1.10%) 등이 전분기 실적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7.27%)가 전분기 실적을 발표. 월마트는 전분기 실적이 매출단에서 시장 기대를 웃돌았음에도 주가가 큰 폭 하락. 실적 발표에서 올해 높은 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소비자 지출 둔화 우려를 언급했으며 이를 반영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연간 및 현재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한 영향. 식료품점 체인 크로거(-2.34%)는 월마트(-7.27%)와 코스트코 홀세일(-2.19%)에 맞서기 위해 전 매장의 판매 가격을 대폭 인하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이후 하락.

한편 할인 백화점 로스 스토어스(-0.28%)는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연간 수익 가이던스를 상향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

###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는데..

전 거래일 마감 이후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1.77%)는 다만 주가 측면에서 다소 시큰둥한 모습. 전분기 매출이 81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했으며 순이익은 5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현재 진행분기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으며, 분기 배당금을 인상하고 자사주 매입 계획도 추가로 발표했지만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함. 이미 높아질만큼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이번 발표로 훌쩍 뛰어넘지는 못했다는 평가에 더해 마이크로소프트(-0.47%)가 앤트로픽과 AI칩 공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 또 AMD(+0.45%)가 대만 반도체 생

태계에 대한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 등은 엔비디아를 둘러싼 경쟁 환경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줘 역시 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앤트로픽에 AI 칩을 공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CNBC가 보도. CNBC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으며 만약 계약이 체결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의미 있는 승리라고 평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지난해 11월, 앤트로픽에 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앤트로픽은 애저에 3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던 바 있음.

한편 AMD(+0.45%)는 대만 반도체 생태계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힘.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AMD의 투자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제조 허브인 대만에서 입지를 확대해 현재 AI 칩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추격하려는 시도라고 분석. AMD는 이날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1.38%)를 통해 베니스 CPU의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시간외 특징주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0.91%)는 푸이그와 진행 중이던 잠재적 합병에 대한 논의를 종료했다고 밝힌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 푸이그는 바이레도, 샬롯 틸버리, 유리아주, 드리스 반 노튼, 장 폴 고티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에스티로더와 푸이그 합병이 성사될 경우 시가총액 400억 달러, 연 매출 200억 달러 규모의 화장품 공룡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최근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에스티로더가 푸이그와 합병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어왔으며 이에 주가는 약세를 보인 바 있어, 합병 무산 소식은 안도감으로 반영되는 중.

재무 및 인사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워크데이(-3.76%)는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 기대를 웃도는 전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마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

화상 회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줌 커뮤니케이션스(-2.69%)는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았고 자사주 매입 규모도 10억 달러 증액한다고 밝히자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

### 이외 특징주

우주기업 로켓랩(-6.58%)은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나스닥 상장을 위한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이후 하락.

금융 소프트웨어 업체 인튜이트(-20.02%)는 전체 인력의 17%를 감원한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과 함께 다소 부진한 전분기 실적을 공개한 이후 하락.

농기계 업체 디어(-5.19%)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에도 약세.

데이터센터 업체 어플라이드 디지털(+21.51%)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기업과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뒤 급등.

중국의 수출 제한 우려에 하락했던 희토류 관련 주식이 개별 이슈와 함께 반등세를 이어감. USA 레어 어스(+7.62%)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희토류 원소 분리 시범 개발 지원을 위한 1,93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고 크리티컬 메탈스(+3.63%)는 그린란드 탄브리즈 희토류 광산과 15년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상승.

블룸 에너지(+9.06%)는 유럽 네비우스(+14.65%)와의 파트너십 발표 이후 강세 지속. AI 클라우드 제공업체 네비우스는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블룸 에너지와의 파트너십을 체결.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13.06%)는 투자자 설명회에서 강력한 전망을 제시한 후 급등. 연평균 10%대 중반의 매출 성장률 전망과 함께 구독자 10억명 확보 계획을 밝힘.

##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 국채 금리 혼조

미 국채 금리가 전일 큰 폭 하락 이후 대체로 혼조.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7bp 상승한 4.586%를 기록했으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9bp 상승한 4.087%를 기록함.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5.110%로 0.5bp 하락.

장 초반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기급에 가까운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전해지자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해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이와 함께 국채금리도 상승. 다만 이후 카타르 매체 알자지라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반박성 보도를 냈고, 파키스탄의 중재 하에 종전 합의 최종안이 마련됐다는 이란 ILNA 통신의 보도도 전해져 다시금 합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유가와 함께 국채금리도 하락.

이날 재무부가 실시한 10년물 물가연동국채(TIPS) 입찰에서는 예상보다 부진한 수요를 확인했으며 발행 수익률은 2.169%로 3월 있었던 직전 입찰에 비해 27.3bp 상승.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40% 초반대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25bp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50% 후반대를 나타냈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함.

### 달러 강보합

미국 달러화 가치는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초반 약화됐던 미국-이란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가 오후 들어 살아나자 오름폭을 축소했지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06% 상승한 99.168을 기록. 장 중에는 99.5선을 넘기기도 했음.

유로존과 영국의 5월 합성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동반 부진을 보이자 파운드와 유로는 약

세. 전쟁의 영향이 실물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부각됨. 유로-달러 환율은 0.071% 하락한 1.1621달러를 기록.

전일 주간 거래에서 1,506.1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90원 상승한 1,508.0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35원)을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0.85원 하락한 1,503.90원을 기록.

### 국제유가 장 중 변동성 확대..하락 마감

국제유가는 장 중 급등하다 다시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을 키운 끝에 하락 마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1.94% 하락한 배럴당 96.35달러에 마감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음. 브렌트유 7월 인도분은 2.32% 하락한 배럴당 102.58달러에 마감. 초반 이란 최고지도자의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불허 지시가 있었다는 로이터 보도가 전해지며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해당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는 결국 합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확대함, 4.5% 가까이 급등. 다만 이후 로이터의 보도를 부인하는 내용이 카타르 매체 알자지라 기자를 통해 전해지며 오름폭을 축소. 오후 들어 파키스탄의 중재로 종전 합의 최종안이 마련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유가는 하락 전환.

한편 UBS는 이날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10달러 상향 조정해, 9월 브렌트유 가격을 105달러로, WTI를 97달러로 예상함.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여름철 성수기 연료 수요 증가와 중동 지역 신규 원유 수출 부족, 재고 감소가 겹치며 7~8월 원유 시장이 '레드 존', 즉 위험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

금값은 보합권에스 등락.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은 0.1% 하락한 온스당 4,542.50달러에 마감.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